

---

---

# 이정수의 1811년 연행과 대외 인식의 노정

- 『遊燕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이 명 제  
(동국대학교)

---

머리말

I. 『유연록』의 저술 배경과 그 체제

II. 동아시아 각국 인식의 향배

III. 이정수의 대청 인식

IV. ‘해외세계’ 인식과 중층적 대청관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4A01037366).

● 투고일: 2016. 8. 2.      ● 심사일: 2016. 8. 5.      ● 게재확정일: 2016. 9. 1.

www.kci.go.kr

## 요약

명청교체 이후 조선 지식인들은 조선을 중화문명의 유일한 계승자로 격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조선 지식인들의 노력은 종족·지리·문화적 측면에서 중화의 지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적 측면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중화문화를 내면화하는 문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과 달리 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커져만 갔다. 즉 청조의 치세가 안정될수록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청을 사유하는 방식이 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李鼎受(1783~1834)가 활동하였던 19세기 전반의 서울지역은 다양한 사유들이 충돌하던 시·공간이었다. 한편에서는 18세기 후반 청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던 북학파들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辛酉邪獄 등을 통해 새로운 사상이 탄압당하고 외척 가문 중심의 권세가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정수는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대청관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조선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는 한편 고조선의 지리적 강역을 공유하고 있었던 청과 경계 짓기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청은 ‘이적’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이적으로서의 청의 지위는 오삼계론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정수는 송시열과 김창업, 그리고 일부 북학파에 의해 이루어진 오삼계에 대한 공정과 청에 대한 이해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세계질서에 대한 이정수의 이해는 전통적인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정수는 외국조빙조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의 전통에 따라 중국과 해외제국들에 대한 조공·책봉 관계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 이정수의 1811년 연행과 대외 인식의 노정

또한 이정수는 서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그는 서양의 학문을 금수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며 西洋禽獸論을 전개한다. 즉 이정수의 대외인식은 전통적인 중화와 이적의 구도가 여전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儒學과 西學, 혹은 反儒學의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정수의 문화적 화이관이 19세기 전반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확장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이정수(李鼎受), 『유연록(遊燕錄)』, 연행록, 중화주의, 화이관, 대청인식

## 머리말

병자호란의 치욕과 명청교체는 조선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적인 청의 중국지배는 崇明反淸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쉽사리 인정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 지식인들은 南明 정권에 기대하는 한편, 북벌정책을 추진하여 중화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남명 정권이 붕괴하게 되고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이 갑작스레 죽은 이후, 대다수 지식인들은 청에 대한 復讎雪恥 대신 尊周大義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sup>1)</sup>

청에 대한 군사적 전복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리자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을 중화의 적통으로 위치 짓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송시열계 서인-노론 세력은 對明義理論을 강조하며 만동묘와 대보단 설치를 주도하여 明에서 끊어져버린 중화의 유산을 상속받고자 하였다. 正祖 역시 『尊周彙編』, 『皇明遺民傳』 등의 간행을 통하여 중화에 대한 기억들을 상기시켰다.<sup>2)</sup> 송시열계 노론과 정조의 노력 등이 문화적 측면의 중화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종족과 지리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존재하였다. 18세기 들어 소론 측에서는 秦漢古文과 古學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古代史, 특히 箕子에 주목하여 조선의 중화적 전통을 上古 시기까지 끌어올렸다.<sup>3)</sup> 남인계에 속했던 이익은 순임금이 설치한 幽州를 단군과 기자의 古土로 여겼으며, 김수홍은 「朝鮮八道古今總攬圖」에서 중원에 배정되던 28宿 중 箕尾분야를 고조선 지역 및 조선 땅에 배당하였다.<sup>4)</sup>

1) 우경섭, 2013,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南明王朝 인식」, 『한국문화』 61.

2) 정옥자, 198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3) 조성산, 2009a, 「조선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역사학보』 202.

이와 같이 조선을 중화문화의 유일한 계승자로 격상시키는 작업은 조선 지식인들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시도되어 왔다. 비록 중화를 전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는 중화문화를 내면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문제는 현실의 청을 사유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청은 극복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조선에 삼전도의 굴욕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중화였던 명을 대신해 증원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 조공·책봉 질서 속에서 섬겨야 할 대상이었고,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崇明反淸’이라는 숭고한 이념 너머에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명칭교체에 대한 인식이었다. 1670년 宋時烈이 朴世采에게 “명나라는 이자성에게 망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은 청에 대하여 雪恥해야 할 의리만 있을 뿐 復讎해야 할 도리는 없다”<sup>5)</sup>고 이야기한 이래 명칭교체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 세대 뒤의 김창업은 송시열의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吳三桂에 대한 功過를 재평가하고 청 문물 수용의 단초를 열었다.<sup>6)</sup>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제기된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북학파의 등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북학파에 속했던 洪大容과 朴趾源 등은 낙론적 심성론을 바탕으로 청조 문물 및 학술에 대한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였다.<sup>7)</sup> 북학파의 등장이 기존의 대청인식과는 뚜렷이 구별되기는 하였지

4) 배우성, 2012, 「조선후기 中華 인식의 지리적 맥락」, 『韓國史研究』 158.

5) 『宋子大全』 附錄 卷18, 語錄.

6) 이경구, 2003,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6~213쪽; 이학당, 2014, 「金昌業의 明末淸初 戰爭 記憶」, 『東方漢文學』 60.

7) 유봉학, 1982, 「北學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湛軒 洪大容과 燕巖 朴趾源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8.

만 이들 역시 의리론적 태도와 일별할 수는 없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일부 지식인들이 북벌론적 사유와 완전히 분리되어 중국과 조선에 대한 객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sup>8)</sup> 하지만 여전히 ‘승명반청’ 의식은 대다수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고 있었으며, 북학적 사유와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을 중화문명 안에 위치지우는 작업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진 반면, 청을 대하는 사유 방식의 간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청조의 치세가 조선 지식인들의 기대와 달리 안정적으로 장시간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과 청의 관계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 또한 17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선사회에 유입되어 온 서학과 명·청대의 사상적 조류들 역시 조선 지식인들의 다양한 사유의 이유가 되었다.

본 글은 19세기 전반 지식인, 李鼎受(1783~1834)의 연행록을 통해 대외인식의 사유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전반은 대내적으로는 강고한 화이관으로부터 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유가 계승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서학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지식인의 대외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18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다양한 사유들이 19세기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관계맺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19세기 중·후반의 대외인식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8) 조성산, 2009b,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對淸認識의 변화와 새로운 中華 관념의 형성」, 『韓國史研究』 145.

## I. 『유연록』의 저술 배경과 그 체제

### 1. 저자와 가계

『유연록』의 저자 이정수는 1811년 內從兄인 書狀官 韓用儀의 伴尙 자격으로 연행에 참여하였다.<sup>9)</sup> 이정수는 과거에 합격하거나 관직을 경험하지 못했고, 현재 남겨진 문집도 없기 때문에 그의 생애나 사상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는 이정수의 가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나마 그의 생애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정수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내종형 한용의의 아버지 韓樂裕의 족보를 보면 처는 淑人全州李氏이며 처부는 承旨 李命勳으로 기재되어 있다.<sup>10)</sup> 따라서 이명훈은 이정수의 조부가 되는데, 그는 선조의 13번째 아들 寧城君 李瑋의 자손으로 그의 가계는 全州李氏 寧城君派에 속한다. 『濬源系譜紀略』과 『文科榜目』을 통해 그의 가계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그림 1】 이명훈 가계도



9) 『遊燕錄』 卷6上, 日記1, 我境, “內從兄韓正言伯羽氏 以書狀官 將赴燕 要我伴行”

10)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http://www.cheongjuhan.net/>

11) 『濬源系譜紀略』 卷12, 「宣祖大王內外子孫錄」; 『國朝文科榜目』

12) 문과방목을 확인해보면 부는 李禔, 생부는 李尙文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마도 이명훈은 이담의 집안으로 입후한 듯하다.

하지만 『선원계보기략』과 『문과방목』을 통해서는 이명훈의 아들, 즉 이정수의 아버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다행히 이정수는 『유연록』 내에 그의 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또 선군께서 辛酉年에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서 전하길, 원승환이 영원을 진수하였을 때 崇德帝가 영원을 갑자기 공격하여 큰 쇠뇌로 성을 부수고 들어가려하였지만 날이 저물어 다음 날을 기약하였다. 원승환이 곧 천에다 그림을 그려 성이 혈린 곳에 걸어두었다. 이날 밤 하늘에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차가워 얼음성이 완성되었다. 승덕제가 새벽에 멀리서 무너졌던 성이 다시 완비된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신묘하다 여기고 마침내 피를 토하였다 한다.”<sup>13)</sup>

위의 기사는 영원성의 구혈대에 관한 내용으로, 이정수는 아버지가 신유년(1801)에 남긴 기록을 살펴보았다고 하였다. 신유년에 남겨진 연행록으로는 吳載紹의 『燕行日記』, 柳得恭의 『燕臺再遊錄』, 李基憲의 『燕行日記』 등이 있다. 이 중 이기현의 『연행일기』 12월 13일 기사에서 해당 대목과 동일한 곳을 찾을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이정수의 아버지가 이기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기현은 1763년(영조 39) 생으로 정조 24년(1800) 별시에서 을과 1위로 합격하였다. 관직은 掌書까지 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sup>15)</sup> 1804년 靈光郡守로 재직할 당시 신병을 이유로 下去를 청하였다가 과직을 당하였고,<sup>16)</sup> 얼마 후 죽은 것으로 보인다.<sup>17)</sup>

13) 『遊燕錄』 卷7, 日記3, 渡江下, 十二月十四日戊午, “又按先君辛酉錄曰 世傳袁崇煥鎮寧遠時 崇德帝急攻之 以大礮碎城將入 值暮期以明日 崇煥乃晝布作成 縋於城毀處 是夜 天雨且寒 成一冰城 崇德帝乘曉望見 崩城已完 大驚以爲神 遂嘔血云”

14) 李基憲, 『燕行日記』 上, 十二月十三日.

15) 『承政院日記』 99책, 순조 3년 3월 20일 갑인.

16) 『承政院日記』 100책, 순조 4년 5월 16일 갑진.

## 이정수의 1811년 연행과 대외 인식의 노정

그의 관직생활이 5년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못하였지만 몇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최근 발굴된 『正祖御札帖』에 이기헌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8)</sup> 이에 따르면 정조는 179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기헌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기헌이 입격한 1800년에만 3차례 언급하고 있어 그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정조어찰첩』 속 이기헌 관련 내용

번호	수신장소	수신일자	내용
236	三清洞	1797.12.19	돈녕부 참봉 자리에 관한 의망에서 이기헌을 삼별 중 편한 자리에 배치할 것을 지시
603	三清洞	1800.02.04	산림에 관한 문제를 이기헌 무리와 상의해서 도모할 것
615	三清洞	1800.04.22	이기헌의 초계문신 탈락을 예석해 함
644		미상	새로 관직에 나온 이기헌 무리 등에게 일의 사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모할 것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차례의 편지에서 이기헌 무리[李基憲輩]라고 지칭하여 이기헌을 한 세력의 좌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산림의 처리와 같은 꺾끄러운 문제를 이기헌 무리와 상의하게 한 점이라든지, 일의 사리를 분명히 알게 하라고 沈煥之에게 지시하고 있는 모습 등을 통해 이기헌의 비중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리해보면 이기헌의 활동은 정조와 심환지의 정치적 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의 당파성이 僻派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조는 1800년에 사망하기 때문에 정조대 이기헌의 활약은 크게 살펴볼 것이 없지만, 순조 초년의 그의 활동을 살펴보면 심환지와 밀접하게

17) 『承政院日記』 100책, 순조 4년 6월 6일 게재.

18) 『正祖御札帖』 丁巳十二月十九日; 庚申二月初四日; 庚申四月二十二日; 미상(6첩 44)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기현은 순조가 즉위하자 正言·持平·副校理·副修撰 등을 역임하게 되는데, 특히 辛酉邪獄의 선봉에 서서 蔡濟恭을 비롯한 시파 및 남인 계열을 공격하였다.<sup>19)</sup> 하지만 이기현의 처지는 심환지가 사망한 이후 급격히 좁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현은 1803년부터 탄핵을 받기 시작하고, 牌招에도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804년 비교적 단명하기에 이른다.

한편 이기현에게는 맏아들이었던 이정수를 제외하고도 李鼎俊과 李鼎敍라는 아들이 있었다.<sup>20)</sup> 이정수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차차 이정준은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삼남 이정서는 순조 26년(1826) 별시에 합격하여 칠종대까지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정서는 正言·持平·修撰·同副承旨 등을 역임하였지만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정서에게 더욱 주목되는 점은 혼인관계이다. 이정서의 처는 尹趾東의 장녀로 윤지동은 尹得孚(1723~1799)의 아들이다.<sup>21)</sup> 윤득부는 정조가 즉위하자 영조대 충애를 받던 徐命善(1728~1791)을 탄핵하고 소론의 영수였던 尹拯(1629~1714)의 복관을 반대하였던 벽파 인사였다. 이정서가 윤득부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벽파가문 사이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정수 가문과 윤득부 집안 사이의 혼인관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윤지동의 二女는 李鼎臣(1792~1858)과 혼인하였는데 이정신 역시 전주이씨 영성군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이정수와 이정신은 李泓 대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팔촌사이였지만 두 집안이 모두 해평 윤씨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들이 벽파계열 내에서 일정한 네트워크

19) 『純祖實錄』 卷2, 순조 1년 2월 9일 을묘; 10일 병진; 14일 경신 등.

20) 『崇禎紀元後四戊子式司馬榜目』 生員試. 이기현의 둘째아들이었던 이정준은 1828년(순조 28) 식년시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상기 항목에는 이정준의 가족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사항 중 雁行 부분을 살펴보면 “兄鼎受 弟鼎敍”라 기재되어 있다.

21) 『臺山集』 卷11, 墓誌銘, 禮曹參判尹公墓誌銘.

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정신의 어머니는 반남박씨 朴準源(1739~1807)의 딸로 순조의 외척가문이었으며, 아버지 李堯憲(1766~1815)은 정조의 총애를 받고 홍경래의 난을 평정한 인물이었다.

위와 같이 이정수의 집안은 당대 서울 지역에서 벽파계열의 인사 및 가문들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비록 그의 행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이기현과 아우 이정서의 관직생활 및 인간관계를 통해 이정수 집안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이정수와 먼 친척이지만 윤득부 집안과의 겹사돈 관계였던 이정신을 통해 전주이씨 영성군과의 순조대 지위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정수가 이러한 가풍의 영향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어지는 연행록의 내용을 통해 그의 사상적 위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 2. 『유연록』의 체제와 서술상의 특징

이정수는 1811년 한용의의 자제군관으로 연행에 참석하였다. 이정수는 조선으로 돌아와 연행 당시의 견문과 기록, 그리고 시문 등을 모아 1817년 『유연록』을 펴냈다.<sup>22)</sup> 『유연록』은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燕行錄續集』 123~126권(林基中 編, 尙書院, 2008)에 수록되어 있다. 유연록은 총 11권 11책으로 卷1~2까지는 詩文, 권3~5까지는 雜誌, 권6~11까지는 日記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저술이다. 해당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遊燕錄』 卷1, 自序, “強國赤奮若清明日 題于龍門之雪堂下”

【표 2】『遊燕錄』 목차

분류	권호	목차	
詩文	1	賸行諸篇【合六十九首】 遊燕錄自序 遊燕錄總目 詩1	
	2上	詩2	
	2下	詩3	
雜誌	3上	總記1	一行上下人馬總記・渡江後沿路地名程站總記 道路州縣山川總記・北京城內外騰觀總記 使行賫居文書式例總記・方物數目式例總記 鳳城瀋陽山海關北京所用禮單人情總記・留館時支供分排總記 賫回物日總記・三使留館時大小公役總記 沿路護行留館接伴總記・兩國禁條總記
	3下	總記2 異觀實聞總記上	風俗人物・衣服飲食・言語文字・冠婚喪祭
	4	總記3 異觀實聞總記中	城池宮室・道街市店・陵墓祠院[附樓臺諸勝]・器用貨貝 舟輦騎乘・水火薪燭・耕種蠶織・獸畜禽漁・書冊名目
	5	總記4 異觀實聞總記下	官職科第・各省風土・外國朝聘
日記	6上	日記1 我境	辛未十月三十日乙亥 ~ 十一月二十四日乙亥
	6下	日記2 渡江上	十一月二十五日庚子 ~ 十二月初八日壬子
	7	日記3 渡江下	十二月初九日癸丑 ~ 十二月二十八日庚午
	8	日記4 留館上	十二月二十九日辛未 ~ 壬申正月十七日辛卯
	9	日記5 留館下	正月十八日壬辰 ~ 二月初一日甲辰
	10	日記6 回程	二月初二日乙巳 ~ 三月初一日癸酉
	11上	日記7 留柵	三月初二日甲戌 ~ 三月二十四日丙申
	11下	日記8 還渡	三月二十五日丁酉 ~ 四月初八日庚戌

위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연록』은 방대한 분량의 연행록이다. 시문과 잡지, 그리고 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량도 11권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기는 6권에 달하는 분량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sup>23)</sup>

『유연록』의 분량이 방대해진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정수가 다양한 서적을 참고하여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고증하려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서적들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801년의 연행을 기록한 이기헌의 『연행일기』 뿐만 아니라 李海應의 『蕪山紀程』(1803)을 참고한 대목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1800년에 제작된 莊廷敷의 『地球圖說』을 참고한 흔적도 보인다. 이외에도 중국 사료로 확인되는 것은 『宋史』·『明史』 등의 관찬 사서류, 『大明一統志』·『全遼志』<sup>24)</sup>·『殊域周咨錄』<sup>25)</sup>·『廣輿記』와 같은 지리지류, 『吾學編』·『昭代典則』<sup>26)</sup>·『明政統宗』<sup>27)</sup>·『明史記事本末』과 같은 사찬 사서류, 그 외에도 『堯山堂外紀』·『升菴集』·『日知錄』 등이 있다.

- 
- 23) 『유연록』의 일기 부분이 방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 사신단이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여 귀국하는 과정에서 留柵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 24) 『유연록』에는 인용한 서적명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한 가지씩 사례를 들도록 하겠다. 『遊燕錄』 卷3上, 總記, 道路州縣山川總記, “玄宗初 封靺鞨別種大榮祚爲渤海郡王 天寶後 靺鞨遂專有遼東地” 해당 부분은 요동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로 대조영을 高麗가 아닌 靺鞨 출신으로 바꾸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전요지』의 서술과 일치한다.
- 25) 『遊燕錄』 卷5, 異觀實聞總記 下, 外國朝聘, “洪武二十年 遣其酋長奉表 來朝貢馬二百匹 其表文曰 大明皇帝受天命 無有遠近 咸照臨之 遠國之人 欽仰聖心 如照世之杯 所謂照世杯者 其國舊有杯 其色洞徹 照之可知世事故云” 해당 기사는 살아아한에 관한 설명으로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홍무 20년의 일로 적시된 경우와 ‘咸照臨之’라는 표현(대부분의 사서에서는 ‘咸昭臨之’)이 일치하는 사례는 『殊域周咨錄』이 유일하다.
- 26) 『遊燕錄』 卷5, 異觀實聞總記 下, 外國朝聘, “洪武初 遣使詔諭西洋 至五年 西洋瑣里國王卜納的 遣使奉金葉表貢方物 並繪其土地山川以獻 此則小西洋” 해당 기사는 서양쇄리국에 관한 설명으로 여러 사서에서 확인이 된다. 하지만 ‘金葉表’와 ‘繪其土地山川以獻’라는 표현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昭代典則』이 유일하다.
- 27) 『遊燕錄』 卷5, 異觀實聞總記 下, 外國朝聘, “嘉靖時 西域諸國 入貢稱王者九十五人” 해당 기사는 清代 입공국에 관한 설명으로 95인으로 표기된 경우와 이하 서술에서 표현상 유사함을 따져보았을 때 『明政統宗』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사료 역시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우선 연행록들이 눈에 띈다. 3가 연행록으로 꼽히는 『燕行日記』(김창업), 『熱河日記』, 『燕記』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瀋陽日記』·『연행기사』(李紳)·『燕行日記』(이기현), 『蔚山紀程』과 같은 연행록들도 인용되고 있다. 연행록 이외에도 다양한 서적들이 인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권5의 外國朝聘條는 李睟光의 『芝峯類說』을 저본으로 삼고 있으며, 朴齊家の 『北學議』<sup>28)</sup> 및 이덕무 등이 편찬한 『奎章全韻』도 인용되고 있다.

이정수가 이와 같이 다양한 참고문헌을 인용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우선 서울 지역에서 누대에 걸쳐 활동하였던 집안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정수가 인용했던 국내의 서적들 가운데 북학파의 저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그가 서울 지역의 최신 학설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 최신의 중국 서적들도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정수에 앞서 연행하였던 아버지 이기현의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이정수는 국내외의 다양한 참고문헌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나 지리적 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고증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정수는 앞선 기록들을 단순히 인용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을 가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어지는 II장과 III장에서는 『유연록』 서술의 특징을 통해 이정수의 대외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8) 『遊燕錄』 卷3下, “中國人以文字爲言語 如天直呼天 更無一重詭解爲之膜子 故名物尤易辨 雖婦人小兒不知書者 尋常行話 盡成文句”; 卷7, 日記3, “且宋以前往來商舡亦絡繹 明朝以倭患 故海禁甚嚴 而又國俗局於見聞 四百年來不通異國之一舡 眞井蛙之自大耳 昔土亭欲通異國商舡數隻 以救全羅之貧 不爲無見” 해당 부분은 각각 『북학의』에서 제기하고 있는 ‘漢語專用論’과 ‘海外通商論’을 인용하고 있다.

## Ⅱ. 동아시아 각국 인식의 향배

### 1. 조·청 기원과 문명의 층위

이정수는 1811년 12월 6일, 심양을 지나면서 명청교체에 대한 심정을 술회하였다. 특히 明 조정에서 熊廷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끝내 병자년의 치욕과 중국의 멸망이 이어지게 되었으니 슬픈 감정을 이길 수 없다고 표현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명청교체에 대한 감정의 술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이정수는 먼저 조선과 청의 기원 문제를 논하였다.

청의 선조는 곧 우리나라 북쪽 변방의 오랑캐였으니 그들의 시초는 대개 東國에서 나온 자가 많았다. 사서에 기록되어 있기로 ‘조선인[東夷]은 천성이 유순하다’라 하니 저들과 우리의 태생은 의당 그리 멀지 않다. 땅은 더해지지 않았지만 세력은 나누어진 바가 있었으니 의당 저들이 우리를 깔볼 수 없다.<sup>29)</sup>

이정수는 청의 선조를 조선의 북쪽 변방 오랑캐라 지칭하면서 그들의 시초가 동국에서 기원하였다고 밝혔다. 또 ‘조선인의 천성이 유순하다’라는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後漢書』 列傳, 東夷條의 “천성이 유순하다.”라는 표현의 대상을 東夷에서 朝鮮으로 바꾼 것이다. 즉 이정수는 箕子朝鮮 혹은 檀君朝鮮을 자국사의 기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조선의 강역을 조선과 청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땅은 더해지지 않았지만 세력은 나누어졌다’라는 표현 역시 고조선의 옛 강역이

29) 『遊燕錄』 卷6下, 日記2, 十二月初六日庚戌, “清之先卽我國北邊胡也 其初大抵多東國出也 史記稱朝鮮人天性柔順 則彼之與我 宜不甚相遠矣 地不加多 而勢有所分 則宜莫余敢侮矣”

북쪽의 청과, 남쪽의 조선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이정수가 자국사의 기원을 동이, 즉 고조선에 두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한서』를 인용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王制」에 ‘동방을 夷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夷는 뿌리이니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해서 만물이 땅에 뿌리를 박고 나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성이 유순하여 도리로써 다스리기가 쉬우니 군자·불사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孔子가 九夷에 살고자 했던 것이다.<sup>30)</sup>

『후한서』 동이조를 살펴보면, 동이는 天道로 다스려지고 있어 성인이었던 孔子 역시 거처하고 싶었던 장소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동이의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표현이 바로 “천성이 유순하다”라는 구절이었다. 이정수는 이를 통해 중화문명에 의해 인정받았던 동이문명을 조선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이정수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고조선의 강역을 공유하고 있던 조선과 청을 분리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金과 高麗 이후로 저들은 항시 강하고 우리는 약한 것은 어찌서인가? 아마도 북방의 사나운 풍토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풍수가들이 또 우리나라를 老人의 형세라고 부르는데 어찌 그러하겠는가? 예전 세종대왕 시기에 일본과 유구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귀부하였고, 1,000리를 개척하여 육진을 설치하였으니 북방의 강력한 오랑캐라 불리는 자들도 두려워 떨며 귀순하였다. 이때 이후로 변방에 오랑캐들의 침입이 없었던 것이 수 백 년이었으니 [북방의 강하고 약함은] 모두 우리에게 달린 문제였을 뿐이다.<sup>31)</sup>

3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王制云 東方曰夷 夷者 柢也 言仁而好生 萬物柢地而出 故天性柔順 易以道御 至有君子不死之國焉 … 故孔子欲居九夷也”

이정수는 고조선과 지역적 뿌리를 함께하는 북방민족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동이문명을 한반도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이정수가 조선과 청의 동질성보다는 대청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북방민족과 조선의 강약은 공존할 수 없으며, 양자 간의 주도권은 조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북방민족의 기질이 “사나운[桀驁] 풍토”에서 유래하였다고 표현하여 앞서 조선인의 품성을 표현하였던 “柔順”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중화문명의 인정을 받았던 동이문명의 정수는 조선, 즉 한반도 내로 귀속되었고, 청과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기사(혹은 단군)으로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정통론을 세움으로써, 조선 내 중화문명의 시간적 외연을 확대하고자 했던 근기남인계의 모습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정수는 조선과 청을 지리적 강역에 의거해 분리하였고, 그 결과 요동과 만주지역의 역사가 자국사에 편입될 가능성은 사라져버렸다.<sup>32)</sup> 실제로 이정수는 발해에 대한 서술에서 大祚榮을 “靺鞨別種”으로 단정하였다.<sup>33)</sup>

- 
- 31) 『遊燕錄』 卷6下, 日記2, 十二月初六日庚戌, “而金麗以來 彼常強而我弱 何哉 意者北方桀驁風氣使然 而堪輿家又以我國爲老人形 豈其然哉 昔在我世宗大王時 日本琉球莫不稽首歸附 拓地千里 開設六鎮 而所謂北邊之強胡 亦且恐懼而納款 自是厥後 邊鄙無牧馬之警者 數百年 在我而已”
- 32) 근기남인계의 경우 발해를 동국의 역사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였지만 시아에서 놓치지 않고 있었으며, 이정수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柳得恭과 韓致編 등은 오히려 발해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자국사에 편입시켰으니 이정수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조성산, 2009a, 앞의 논문; 문창로, 2011,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 연구 추이와 특징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62; 김종복, 2011,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발해사 연구 성과」, 『한국고대사연구』 62 참조.
- 33) 『遊燕錄』 卷3, 總記1, 道路州縣山川總記, “玄宗初封靺鞨別種大祚榮爲渤海郡王 天寶後靺鞨遂專有遼東地” 해당 기록은 중국측 지리지인 『全遼志』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요지』에서는 대조영을 “高麗別種”이라 표기하고 있어 이정수가 자신의 역사인식에 맞추어 수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정수의 관심은 현재의 역사로 향한다.

비록 그러하지만 저들과 우리의 강약은 중국의 성쇠와 함께 봐야한다. 중국이 강성하면 우리는 강하고 저들은 약하며, 중국이 쇠퇴하면 저들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였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중국의 內服과 같고, 저들은 실로 중국의 外寇이기 때문이다.<sup>34)</sup>

이정수는 조선과 청의 관계 위에 중국을 등장시켰다. 이는 앞서 조선과 북방민족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조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청관계가 역전된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중국’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정수는 ‘중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청’과 대비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적과 대비되는 보편적 중화를 가리킬 수도 있고, 과거에 ‘청’과 대립하였던 ‘명’, 혹은 먼 미래에 이적을 극복하고 들어설 실제의 중화국가를 가리킬 수도 있다. 즉 ‘중국’은 중화문명 국가를 상징화한 것으로 ‘청’은 중화문명에서 배제된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선은 중화 문명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동이 문명의 정수를 지니고 있었고, 조선과 중국은 이적과 대비되는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조선과 청의 경계 짓기는 문명과 문명의 경계 짓기로 확대된 것이다.

저들(= 청)이 이미 천하를 석권하여 [영고탑으로 돌아가더라도] 중국과 더불어 부강하게 되었으니 훗날 중국의 주인이 된 자가 장차 저들을 내버려 두겠는가? 반드시 크게 병사를 일으키고 깊게 쳐들어가 그 소굴을 완전히 소탕하고 그들의 근본을 영원히 끊어버린 이후에야 중국이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다. 훗날 이 거사가 진실로 한번 노력하여 영구히 편히 지낼

34) 『遊燕錄』卷6下, 日記2, 十二月初六日庚戌, “雖然 彼我之強弱 一視中國之盛衰 中國盛則我強而彼弱 中國衰則彼強而我弱 無他焉 我猶中國之內服 而彼實中國之外寇”

수 있는 훌륭한 계획이 될 것이니 안팎에서 협공하려면 또 어찌 우리에게 손을 빌리지 않을지 알겠는가? 과연 이러한 일이 있다면 중국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행복일 것이다.<sup>35)</sup>

이 날의 일기는 위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이정수는 훗날 중화의 국가가 이적을 완전히 소탕할 것이며, 이 때 조선 역시 중국과 함께 이적을 협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조선의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선이 국제정세를 헤아려 吳越과 같이 현실 중국(=청)에 적극적으로 사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던 이익과는 다른 결론이다.<sup>36)</sup> 이정수 역시 고조선을 근원으로 하는 동이문명의 우수성에 대해 주목하였지만, 이것은 오히려 문명적 충위를 확고하게 나누는 작업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 2. 명·청 교체의 원인과 청의 위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정수는 조선의 정통을 상고 시기에서 찾았고, 동이문명과 중화문명의 친연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조선의 지리적 강역을 공유하고 있었던 청과 경계 짓기를 시도하였고, 청에 대해 ‘이적’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이 지점은 이정수가 조선후기 실학자, 그 중에서도 북학파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명청교체’에 대한 인식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35) 『遊燕錄』 卷6下, 日記2, 十二月初六日庚戌, “然而彼既席卷 而歸與中國 將其富強則爲他日中國主者 其將一任之而已耶 必將大舉深入 盡蕩其巢穴 永絕其根本而後中國始可以安枕矣 異時此舉誠一勞永逸之長策 而內外夾攻 又安知不假手于我也 果有是也 非但中國之幸也 亦朝鮮之幸也”

36) 이익의 형세론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3, 「星湖 李瀾의 箕子 인식」, 『退溪學과 韓國文化』 33, 82~85쪽 참조.

啓禎(天啓~崇禎 연간: 역자주) 이전에는 名公과 鉅卿들이 왕왕 어울리며 중국의 예악을 살피고, 文人과 才士들이 연을 맺으며 기개를 떨쳤으니 이것이 행운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세상이 크게 변한 이후로 사신의 임무를 뜻있는 선비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긴 세월 동안의 시구들이 대부분 쓰러져버린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불행이 무엇인들 이것보다 심할 것인가? 그러나 산하는 비록 옛적과 달라졌다고 하지만 風光是 바뀌지 않았고, 인민은 옛날의 인민이 아니지만 성곽은 모두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니 어찌 불행 중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사행에서 볼 수 있는 중화의 모습이 어찌 적다하겠는가?<sup>37)</sup>

다음은 『유연록』의 自序로, 이정수는 명청교체를 상전벽해[滄桑]에 비유하고 있다. 청이 들어선 이후 중화의 문물은 사라져버렸고, 뜻있는 선비들은 시를 지으며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풍광과 성곽을 통해 중화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자위하였지만 산하와 인민은 모두 옛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을 멸망시킨 대상은 누구인가? 李自成인가? 혹은 청군인가? 바로 이 문제가 조선후기 청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한 가운데에는 吳三桂(1612~1678)가 존재한다. 오삼계는 1644년 산해관의 鎮將으로 청군을 방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자성이 북경을 함락하고 승정제가 자살하자, 관문을 열고 청군과 함께 북경을 탈환하였다. 이후로도 오삼계는 남명의 永曆帝를 붙잡는 등 혁혁한 전공을 올렸지만, 1673년 강희제가 삼변을 철수시키자 청조에 반란을 일으켰다. 오삼계는 1678년 청제를 하였지만 같은 해 병사하고 삼변의 반란군은 1681년 토벌된다.

37) 『遊燕錄』 卷1, 自序, “啓禎以前 名公鉅卿往往與觀於周樂 而文人才子因緣以吐氣 茲非幸歟 自夫滄桑既變 皮幣之役 志士恥之 而雨雪楊柳之什 多出於風泉榛苓之感 其爲不幸 孰甚焉 然而山河雖異 而風光不殊 人民則非 而城郭皆是 庸詎非不幸之幸 而是觀也 又曷可少之哉?”

일찍이 송시열은 명이 流賊[이자성]에게 망한 것이지, 청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송시열은 오삼계를 명을 위한 純忠의 신하라 여겨 吳王이라 불렀다.<sup>38)</sup> 오삼계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송시열에 비해 한세대 뒤에 활동하였던 김창업은 『燕行日記』에서 오삼계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담당하였다. 그는 이미 북경이 함락된 상황에서 오삼계가 홀로 산해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산해관을 포기하는 대신 군부의 원수를 갚은 것은 임시변통의 의라 평가하였다. 또한 북경을 탈환한 이후 30년간 은인자중하다 청나라에 저항하였으니 이 역시 장한 행위로 이해하였다. 다만 명 왕실을 세우지 않고 참칭한 점에 대해선 절의를 잃었다 평가하였다.<sup>39)</sup>

김창업의 평가를 살펴보면 명청교체 이후 오삼계에 대한 행적이 아직까지 조선 측에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점은 김창업에 의해서 ‘명이 이자성에 의해 망한 것이지, 청에 의해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송시열의 인식이 더욱 구체화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오삼계에 대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18세기 후반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호수의 경우는 그의 『燕行記』에서 오삼계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오삼계를 옹호하였던 송시열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서호수는 자신이 오삼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皇清開國方略』의 열람을 꼽고 있다.<sup>40)</sup>

38) 『厚齋集』 別集 卷3, 雜著, 尤齋先生語錄; 『燕行記』 卷4, 庚戌九月十三日庚寅.

39) 김창업, 『燕行日記』 卷3, 壬辰十二月十九日戊辰. 김창업의 오삼계론에 대한 평가는 이학당, 2014, 앞의 논문 참조.

40) 『皇清開國方略』은 入關 전 청조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관찰사서로 1786년 완성되었다. 하지만 서호수도 밝혔듯이 아직까지 『황청개국방략』은 공식적으로 조선에 전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서호수 역시 단지 함께 연행한 朴齊家가 유리장에서

그에 비해 서호수 이전에 연행하였던 홍대용의 경우 적극적 평가 대신 “오삼계가 청병과 함께 李自成을 깨뜨렸다”라는 정도의 언급으로 명청교체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sup>41)</sup> 박지원은 “覺羅가 關外の 이자성이고, 이자성이 또한 관내의 각라였으니 명이 비록 망하지 않으려 해도 할 수 있었겠는가?”라 하고, 이어서 “洪承疇와 오삼계는 지혜와 용맹함으로 천하에 대적할 자 없지만 각라를 만나 대패하였으니 이 지경에 이르면 氣數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다.”<sup>42)</sup>라 하여 오삼계를 변호하고 명청교체의 상황을 기수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청 문물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 등이 오삼계에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즉 현실로서의 중화였던 ‘명’을 멸망시킨 대상을 이자성으로 제한하고, 청군의 남관이 부득이한 결과였음을 강조함으로써 청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sup>43)</sup> 이정수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저들이 중국의 주인이 된 지 200년이 넘었으니 애통하지 아니한가? 요컨대 이는 오삼계가 남관한 죄이다. 이에 대해 김창업은 오삼계를 임시변통의 의[倉猝處義]로 하여하였으니 사려가 깊지 못한 것이다.<sup>44)</sup>

---

일부 謄寫한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때까지도 오삼계의 행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조선 사회에 전해지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燕行記』 卷3, 庚戌九月三日庚辰; 卷4, 庚戌九月十三日庚寅.

- 41) 『湛軒書』 外集 卷9, 「燕記」, 角山寺.
- 42) 『熱河日記』, 「馴汎隨筆」, 七月十八日甲午.
- 43) 이경구, 2003, 앞의 논문, 214~219쪽. 하지만 이경구의 지적처럼 김창업은 청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강고한 존주이리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는 18세기 후반 북학파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김호, 2013, 「조선 후기 華夷論 再考-「域外春秋」論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62 참조). 즉, 조선 후기 청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화이론’의 구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적’에 대한 용통성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44) 『遊燕錄』 卷7, 日記3, 十二月十七日辛酉, “... 主中國者 垂二百年 不亦痛哉 要之吳三桂納關之罪也 而乃稼齋論之 許以倉猝處義之得 其亦未之思乎”

이야기는 김창업에 대한 강도높게 비판으로 시작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정수에게 청은 조선과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였다. 따라서 청은 명 청교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는 오삼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자성은 단지 산서의 流賊이었을 뿐이다. … 황성이 함락된 것 역시 군주만 있고 신하는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니 이자성이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황성이 스스로 함락된 것이다. … 만일 오삼계가 이자성을 문죄하고자 서쪽으로 빨리 진군하였다면 진실로 안에서 응하고 밖에서 협세하는 세력이 있었을 것이니 중원의 충의한 무리들이 또한 어찌 호응하지 않았겠는가? 황성을 수복하고 사직을 거듭 바꾸는 것은 한번 거사하는 수고였을 뿐이고, 관문을 지키는 것은 한 명의 편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 천하가 이미 평정되고 나서는 불복하는 마음을 품고 도리어 노년에 스스로 분발하려 해보아도 쉽지 않다. 하물며 몸소 군주를 시해하고 황제를 참칭한 자에 있어서겠는가? 오호라. 훗날 군주를 시해하고 참칭한 오삼계가 곧 전날의 관을 열고 적을 맞이한 오삼계이며, 전날 관을 열고 적을 맞이한 오삼계가 곧 훗날 군주를 시해하고 참칭한 오삼계이다. 전날과 훗날의 오삼계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노가재가 그 처음의 실책을 깊이 탐구하지 않고 도리어 오삼계 말년의 절개가 청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끝내 애석하게 여기니 어찌 이리 우월하단 말인가?45)

이정수는 이자성의 자질에 대한 과대평가, 산해관의 견고함에 대한 과소평가, 永曆帝에 대한 공격, 참칭에 대한 책임 등 오삼계의 행적에 관

45) 『遊燕錄』 卷7, 日記3, 十二月十七日辛酉, “夫自成特山西一流賊耳 … 皇城之陷 出於有君無臣 束手待盡 非自成之陷之 乃皇城自陷也 … 使三桂而問罪 西行倍道疾進 則固自有裏應外合之勢 而中原忠義之徒 亦豈無一時響應者乎 克復京城 重匡社稷 一舉足之勞耳 留鎮關門 一偏將足矣 … 及天下已定 內懷不服 顧欲自奮於白首之日 難矣 況又身犯僭弒而爲之者哉 嗚呼 他日之弒君僭號之三桂 卽前日之開關納敵之三桂也 前日之開關納敵之三桂 卽他日之弒君僭號之三桂也 前後三桂 豈二人哉 而稼齋之不深究其初之失 而顧以晚節之不克 終爲可惜 何其迂哉”

한 모든 부분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명칭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김창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

오삼계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궁극적으로 청을 바라보는 이정수의 시선과 밀접하다. 즉, 청은 이자성의 존재와 무관하게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이적이었으며, 오삼계는 중국에 200년간 이적이 횡행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을 뿐이다.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청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를 열었던 송시열의 발언은 물론 오삼계에 대한 김창업의 적극적인 변호까지 모두 이정수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迂闊한 궤변이었을 뿐이다.

### 3. 화이관의 고수와 청 문물 비판

그렇다면 華夷觀에 입각한 대청인식을 보였던 이정수에게 청 문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먼저 다시 서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정수는 중원에서 불만한 것은 풍광과 성곽일 뿐 산하와 인민은 모두 옛적의 모습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양립할 수 없었던 청에게 이정수가 기대하였던 것은 연행로의 풍경과 성곽에서 느낄 수 있는 중화에 대한 희미한 흔적들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연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정수는 6권 분량의 일기 속에서 연행로의 풍경들을 세밀하게 담아내고 있지만, 인적교류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무심하다. 당시 연행사절들은 북경 안에서 당대 지식인들과 교류하거나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정수는 숙부의 부탁으로 아버지와의 교류가 있었던 戶部侍郎 陳希曾과 접촉하려 한 것을 제외한다면 단 한건의 인적교류도 시도하지 않았다.<sup>46)</sup> 심지어 정사의 자제군관이었던 曹龍振의 소개로 朱熹

의 후손이었던 화가 朱鶴年을 알게 되었지만, 이정수는 당시의 名士들이 모두 스스로를 주희의 후예라 칭한다고 비웃을 뿐이었다.47)

청인들을 등한시하는 모습은 청 황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정수는 1월 8일 황제가 圓明園에 행차하자 조선 사신단과 함께 원명원 근처에서 목계 된다. 이튿날 황제가 가마를 타고 나와서 행사가 시작되자, 정사와 부사는 알현을 허락받지만 서장관 이하 모든 관원들은 막사 안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 경비가 허술해지자 몰래 빠져나가 먼발치에서나마 황제의 모습을 훑쳐보려 하지만 이정수는 그대로 앉아 막사 너머 들리는 음악소리만 들었다. 그리고는 그들 중 한명이 나무에 올라 거꾸로 매달려 위태롭게 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뿐이었다.48)

삼사를 제외하고 연행 과정에서 청 황제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특히 자제군관의 경우, 각종 공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역관들의 公服을 빌려 참석하곤 했다.49) 이와 같이 연행 사절들은 억지로 기회를 만들어서까지 청 황제를 보려 노력하였고, 그들이 바라본 황제의 용모를 통해 황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수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에 대해 시큰둥했고, 오히려 태연하게 주변의 모습들만을 관찰할 뿐이었다. 그가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이적 황제에 대한 원초적 무관심과 밀접하다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46) 『遊燕錄』 卷8, 日記4, 壬申正月初十二日 丙戌; 二十七日 辛亥 등.

47) 『遊燕錄』 卷8, 日記4, 正月初五日己卯. 이정수는 주학년이 한 해 전 연행에 참여하였던 김정희와 친교를 나누었던 사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지만 그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며칠 뒤 曹龍振 등이 다시 주학년을 만나러 나갈 때에도 숙소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正月初十一日乙酉).

48) 『遊燕錄』 권8, 日記4, 正月初九日癸未.

49) 이정수 역시 역관의 옷을 빌려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遊燕錄』 卷8, 日記4, 十二月二十九日癸酉.

한인과 만인을 막론하고 청대의 인사들을 등한시하는 모습은 인적 교류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정수의 저작 속에 등장하는 중국 측 기록들의 경우 명대의 역사를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면 청대 문인들의 저작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그가 자주 인용하였던 『오학편』·『승암집』·『요산당외기』 등의 저자 鄭曉(1499~1566), 楊慎(1488~1559), 蔣一葵(?~?)는 모두의 명대의 문인들이었으며, 『일지록』의 저자 顧炎武(1613~1682)는 명청교체기에 활동하였지만 죽는 날까지 청조에 저항하였다던 명말청초의 지사였다.

풍속을 평가하는 모습에서 역시 이정수의 태도는 일관된다.

남자들은 어른과 아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평상시에 반드시 평상에 걸터앉으니 서 있는 것을 예로 여기는 것은 북방의 풍속이다.<sup>50)</sup>

한인 여자들의 복색에는 그래도 중화의 제도가 남아있으니 머리털을 돌려 상투를 만드는데 한번 돌릴 때마다 하나의 비녀로 고정시킨다. 머리락의 길고 짧음에 따라 전후좌우로 고정시켜서 많은 경우 10개의 비녀에 이른다.<sup>51)</sup>

비록 몇 살 안 먹은 어린 아이라도 모두 도포와 모자, 버선과 가죽신을 갖춰 신어 어른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적의 풍속에 관례가 없음을 여기서 볼 수 있다.<sup>52)</sup>

50) 『遊燕錄』 卷3下, 異觀實聞總記上, 風俗人物, “男子無論長少貴賤 居必踞床 以立爲禮 北方之俗也”

51) 『遊燕錄』 卷3下, 異觀實聞總記上, 衣服飲食, “漢女服色 猶存華制 旋髮作髻 而每一旋 壓一簪 隨髮長短 前後左右 或至十簪”

52) 『遊燕錄』 卷3下, 異觀實聞總記上, 衣服飲食, “雖數歲小兒 亦具袍帽靴襪 與長者無異 夷俗之無冠禮 此可見矣”

위의 기사들은 청조의 풍속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모두 앞선 조선 지식인들의 기록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정수는 미묘한 차이를 주고 있다. 첫 번째 기사의 경우, 이수광(1563~1628)의 『芝峯類說』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인들은 서 있는 것을 예로 여겨 평상시에 반드시 평상에 걸터앉는다.”<sup>53)</sup>라 하였다. 이수광은 명청교체가 일어나기 전에 죽었으므로 『지봉유설』에서 언급한 중국인은 당연히 명나라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수광은 이러한 풍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였지만 이정수는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북방의 풍속이라 정정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사는 모두 이해응의 『계산기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두 가지 기사 모두 밑줄 친 부분이 수정되어 있는데, 『계산기정』에서 각각 ‘여자’와 ‘지금 사람’이라는 용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인 여자와 이적의 풍속으로 바꾸어 놓았다.<sup>54)</sup>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중국의 문물 내에서 이적과 중화적 요소가 분리되고 등위가 매겨졌다. 즉 중국의 문물 가운데 전통적 예제와 어긋나는 것은 북방-이적의 풍속으로, 아직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 예제는 한족의 풍속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전통적 예제와 비전통적 예제가 섞여있을 경우에도 비판은 멈추지 않는다.

村店을 지날 때 한 곳에서 龕壁에 세 개의 나무 신주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가운데 신주는 크고 높았으며 시조로부터 몇 대까지를 列書해 놓았다. 양 옆의 신주는 앞의 것보다 작았는데 한 곳에는 부조 및 가까운 대를, 한 곳에는 방계 친척들을 적어놓았다. 하지만 櫃[櫥]도 없고 簾[簾]

53) 『芝峯類說』 卷2, 諸國部, 風俗, “古人以坐爲常 故有侍坐命坐之說 有避席割席之事 管寧之穿榻 亦其證也 今中朝人 以立爲禮 居必踞床 至於父子並踞 未知此俗始於何代 先儒危坐之法 殆廢矣”

54) 『蔚山紀程』 卷5, 附錄, 衣服, “女子衣髻 猶存華制”; “四五歲童子 皆薙髮加帽 而亦具褂子袍子等衣 與長子無異 此所以今人之無冠禮也 ”

도 없이 축대와 향로와 같은 것들만 좌우에 늘어놓았으니 한심해보였다. 가는 곳마다 모두 이러해서 우리 驛夫 무리들이 밤중에 몰래 가져다가 목침으로 쓴다고 하니 더욱 해괴한 일이다. 비록 벼슬아치로 祠堂이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의 위치와 尊奉의 절차에 대해 들으면 이것과 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니 어찌 무식한 촌부들에게 책임을 돌리겠는가? 이것은 이적의 풍속이 중화의 예제를 흉내낸 것이니 『家禮』 1부가 진실로 높은 다락 위에 굴러다닌다 할 수 있다.<sup>55)</sup>

주자는 『가례』를 통해 가묘와 사당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중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치루는 곳으로 사당 안에는 감실을 설치하여 서쪽부터 동쪽까지 4대조의 신위를 모시도록 제시하였다. 이 때 신주는 主櫝에 담아두게 하였다.<sup>56)</sup> 하지만 이정수가 살펴본 중국의 감실은 세계의 신주만 안치되어 있었으며 배열도 중앙과 좌우로 나뉘어져 있었다. 또한 각 신주의 봉안 대상도 『가례』의 그것과는 달랐다. 뿐만 아니라 신주는 주독에 담겨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주만 놓여있는 형태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이정수는 “이적의 풍속이 중화의 예제를 흉내낸 것”으로 보았다. 즉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행위 자체는 중화의 예제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청이 중원을 통일한 이후 형식적인 면에서 쇠퇴하였다고 본 것이다. 李押 역시 『燕行記事』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비슷한 어조로 비판하였다.<sup>57)</sup> 하지만 이압은 이를 산해관 동쪽에서의 현상으로

55) 『遊燕錄』 卷3下, 異觀實聞總記上, 冠婚喪祭, “所過村店 見一處龕壁安三座木主 中者絕大且高 列書始祖以下幾代 左右主稍低小 一書父祖近代 一書傍親 不櫝不簾 而燭臺香爐之屬 左右列焉 見之寒心 沿路到處皆然 故我人驛夫輩 夜間或潛取 以代木枕云 尤爲駭然 雖仕宦有祠堂之家 聞其位置尊奉之節 與此實不甚相遠云 何責於無識村夫輩也 此蓋夷俗之效頌於華者 而家禮一部 眞可束之高閣矣”

56) 유교식 감실 제도에 대해서는 박종민, 2011, 「조선시대 유교식 감실(龕室)의 수용과 변용」, 『문화재』 44-4 참조.

한정하였던데 반해 이정수는 가는 곳마다 이적의 풍속이 중화의 예제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며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며 18세기 후반 지식인에 비해 강고한 화이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 IV. ‘해외세계’ 인식과 중층적 대청관

##### 1. ‘중국’ 중심 세계관의 묵수

이정수의 엄격한 대청인식은 『유연록』 전반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정수가 바라보는 외국은 어떠한가?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宋 이전에는 중국과 왕래하는 상선이 끊이지 않았지만, 명조는 왜구의 근심 때문에 海禁이 매우 엄하였다. 또 국속이 견문에 엄매여 사백년간 외국의 선박 한척도 통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우물 안 개구리가 스스로 크다 여기는 것이다. 예전에 土亭 李之菡 선생이 이국의 상선 몇 척을 통교하게 하여 전라도의 빈곤을 구제하려 했으니 견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남·유구·대만과 같은 외국들은 이미 너무 멀고 또 악의를 가지고 있으니, 폐단도 갑자기 논할 수 없다. 굳이 통상을 해야 한다면 오직 중국뿐일 것이다.<sup>57)</sup>

57) 『燕行記事』, 『聞見雜記』 上, “祭禮則關東皆用滿州禮 故質質特甚 所謂祠堂 渠之中堂樑間 設一龕 畫其三代或四代之像 而並繪器皿及畜物 置爐盒於其前 時或焚香叩頭而已 余嘗指而問於舍館人曰 此果汝之祠堂則驢馬雞犬 與人並列 誰是汝之父祖耶 其人亦笑之 喪家葬後則雖無設奠之節 而所謂几筵 設一卓於炕內 亦置爐盒於其前 朝夕只炷香叩頭 神主則其制不一 或如位版 或無居前居後 而只穿神穴 大小長短及題主之規 亦各不同 皆圓其首 而跗方則甚小 不書傍題 或祭始祖及曾祖以下 或只祭曾祖以下 或不立主 作爲紙軸一幅 列書某氏 始祖以下 並及傍親 大抵皆無定禮 似是各隨其意而書者”

위의 기사는 朴齊家の 『北學議』에 등장하는 ‘해외통상론’에 관한 내용이다.<sup>59)</sup> 이정수는 박제가가 이야기하였던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는 표현이나 토정 이지함의 사례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이정수는 ‘해외통상론’의 대상을 중국으로 제한하였다. 박제가의 경우엔 해외 통상은 중국으로 시작하되, 궁극적으로는 “해외의 모든 나라와 통상하지 않는 것은 임시변통일 뿐이고, 정론은 아니다”라 역설하고 있다.<sup>60)</sup>

흥미로운 점은 이정수가 여기서 언급한 中國은 현실적으로 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정수가 청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적에 다름 아니었고, 청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총체적인 비판을 행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안남과 유구, 대만 등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로 조선과 상대적으로 자주 접촉하여 비교적 친숙한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이정수는 이들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고, 악의를 숨기고 있다”라 표현하며 통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대신 이적이었던 청과의 통상에 대해선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정수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유연록』의 外國朝聘條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외국조빙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외국의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명·청시기 외국 입공의 역사 및 각종 외국관련 기사들을 배치

---

58) 『遊燕錄』 卷7, 日記3, 十二月十五日己未, “且宋以前往來商舡亦絡繹 明朝以倭患 故海禁甚嚴 而又國俗局於見聞 四百年來不通異國之一舡 眞井蛙之自大耳 昔士亭欲通異國商舡數隻 以救全羅之貧 不爲無見 而異國如安南琉球臺灣之屬 既遠且藏奸弊亦不可遽議 無已則其惟中國乎”

59) 『北學議』 外篇, 通江南浙江商舶議.

60) 『北學議』 外篇, 通江南浙江商舶議, “只通中國船 不通海外諸國 亦一時權宜之策 非定論 至國力稍強 民業已定 當次第通之”

하였다.<sup>61)</sup>

외국조빙조 전반부는 『芝峯類說』 諸國部, 外國條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 이정수는 국명과 순서를 일부 수정하였지만 『지봉유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지봉유설』에서 삭제된 중국에 대한 조공의 역사를 복원시켰다. 즉 『지봉유설』 외국조는 이수광 자신의 견문을 토대로 자유롭게 쓰여졌던 데 반해, 『유연록』 외국조빙조는 중국 正史 외국전의 전통에 충실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정수는 청을 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통적 조공-책봉 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의 지위와 관계 없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세계 질서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조선의 위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연록』 외국조빙조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기사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경 예부 벽 위에 外藩 12국의 國名이 걸려있는데 朝鮮이 첫 번째이다.<sup>62)</sup>

連山關 상점 벽에 外國圖가 걸려있는데 총 80개국이다. 高麗가 처음이고, 日本이 다음이며, 琉球가 그 다음이다. 모든 국가들마다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들의 衣冠이 묘사되어 있다. 고려인은 한 사람은 紗帽와 品帶를 착용하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은 氈笠과 黑衣를 착용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모두 두 가지 복장의 인물들로 그려져 있다. 의관은 아마도 文武 혹은 貴賤을 나누어 묘사해놓은 듯하다. 인물의 의관은 종종 詭異하다.<sup>63)</sup>

61) 『유연록』 외국조빙조의 구체적인 구성 및 내용에 관해서는 이명제, 2016, 「조선 후기 세계 이해의 세가지 방식-연행록 외국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8, III장 참조.

62) 『遊燕錄』 卷5, 異觀實聞總記 下, 外國朝聘, “北京禮部壁上 列書外藩十二國名 而朝鮮爲首”

63) 『遊燕錄』 卷5, 異觀實聞總記 下, 外國朝聘, “連山關店壁 揭外國圖 凡八十國 而首高

『유연록』 외국조빙조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외국지 형식과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흥미로운 부분은 북경 예부 벽에 걸려있는 외국명과 연산관 상점 벽의 외국도이다. 이정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朝鮮(高麗)의 위상이다. 즉 두 가지 예시 속에서 조선은 중국 중심의 세계 가운데 수위를 차지하고, 일본, 유구 등의 국가들은 모두 조선의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세계는 중심부에 위치한 중국과 발달된 문명을 지니고 있는 조선을 중심으로 이해되었으며, 동아시아의 제국들은 모두 그 밑에 자리잡게 되었다. 앞서 이정수가 해외통상론에서 그 대상을 중국으로 제한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이면에는 문화적 자존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반서학 정서의 대두와 청 인식의 변용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연록』에서 드러나는 서역, 혹은 서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정수는 앞서 밝힌 것 같이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해외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참고하였고, 여기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전달한 지리 지식 및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정수의 아버지 이기헌은 辛酉邪獄 당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므로 서학에 대한 이정수의 관심은 짐작해 볼 수 있다.

---

麗 次日本 次琉球 每國輒畫兩人 並其衣冠 而高麗人則一像紗帽品帶 一像甕笠黑衣 諸國亦皆兩樣 衣冠似分文武 或貴賤而然也 人物衣冠種種詭異” 해당 기사의 주석에는 80개국 이 모두 나열되어 있다. 그 중 10여개의 국가만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국가들이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山海經』 류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宣武門에 당도하기 전에 동쪽을 향해 바라보자 하나의 鐵鐘이 인가 위에 높게 걸려 있었으니 곧 天主堂이 있는 곳이었다. 역관 무리들이 말하길, “조선 사신들이 예전에는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천주당’ 세 글자는 황제께서 친필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洋學이 크게 번지는 것으로 인해 당액을 떼어내서 저들을 폄하하는 뜻을 내비치고 중국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합니다.”라 하였다. 塘報에 실려있는 것을 통해 살펴보면 계속해서 내려진 教勅이 嚴截할 뿐만이 아니었지만 朝士 가운데 많은 이가 천주교에 빠져들자 혹 품계를 낮추거나 녹봉을 줄이며 관대한 은전으로 처리하고 스스로 一新하도록 하였다. … 황제의 칙유 가운데 간혹 저들을 洋匪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다. 匪라는 글자는 중국인들이 賊寇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니 交匪·川匪와 같은 부류가 바로 이것이다. 양인을 깊이 미워하고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노력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경성 내외에서 금할 수 없고 점차 몰드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간혹 주류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진실로 두렵다 할 수 있다.64)

이정수는 역관들의 말과 塘報를 통해 양학의 성행과 이에 대한 청조의 嚴禁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 서양의 학문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 폐단이 조정의 관리들에게까지 미쳐 두려워할만한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정수의 서학에 대한 비판 속에 이적으로서의 청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청 조정은 엄격학 칙령과 관대한 처분을 통해 서학에서 臣民들을 구제하려 노력하는 주체로 비취지고, 서양인은 도적떼와 비교될 뿐이었다.65)

64) 『遊燕錄』 卷9, 日記5, 正月二十四日戊戌, “未及宣武門 向東望 有一鐵鐘高出人家上 卽天主堂所在也 譯輩言 我人前日 則多有入見者 天主堂三字 御筆題額矣 近因洋學大熾 皇帝命礮去堂額以示貶 彼此人禁不得相通云 以出於塘報者見之 前後教勅 不啻嚴截 朝士中頗有染其教者 或降級 或罰俸 姑從寬典 令其自新 … 而皇諭中 或有以洋匪稱者 匪之爲字 此中人用之賊寇之辭 如交匪川匪之類 是也 其深惡痛絕之如此 而猶不能禁京城內外 漸染滋多 間被誅戮云 誠可畏哉”

65) 당시에는 조선과 청 모두 서학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유가 말하길, “佛子는 환술에 능하고 잔재주가 많다”라 하였으니 대개 불자 역시 서역에서 나온 자들이다. 생각건대 幻戲라는 것은 곧 불자들의 한 가지 법식으로 漢武帝때부터 중국에 전래되었으니 불법이 중국에 들어와 점차 성행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찌 환술뿐이겠는가? 이 때 이후로 무릇 천하에 奇寶라 불리는 것들이 서역에서 많이 나왔으니 玻璃·瑪瑙·葡萄·西瓜·胡桃·獅子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기보들이 불자들과 함께 중국에 전해졌으니 마야호로 중국 전역에 기보들이 넘쳐흐르게 되었으며 異端의 가르침이 중국의 백성들을 유혹하였다. 利瑪竇가 서역의 끝에서부터 넘어와 천하를 돌아다니게 된 이후로는 천하의 백성들이 邪敎와 이단에 빠져들었으니 서로 인심을 이끌고 금수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 이때부터 극에 달하였다.<sup>66)</sup>

다음의 기사 역시 西域에 대한 이정수의 시선을 보여준다. 당시 사행에서 환술 공연은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였고, 1811년의 사행단 역시 관사의 안팎에서 몇 차례 환술 공연을 관람한다. 이정수 역시 공연을 관람한 후 위와 같은 감상평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술이 불법에서 유래한 것이며 한무제 이후로 불법과 천하의 기보들이 중국에 범람하

---

이정수의 적대감 역시 언뜻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정수의 반응을 19세기 다른 연행 기록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03년 연행한 이해응의 경우 天主堂의 외관을 설명하고, “邪學으로 금지된 이후로는 서로 통행하지 못한다.”라는 정도의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 이정수보다 20년 정도 늦게 연행하였던 金景善의 경우도 “서양의 기술을 청과 조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이 陰邪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였지만 역시 이정수에 비해 비교적 담담한 어조이다. 즉 이정수의 서학에 대한 감정은 동시대 다른 지식인에 비해 격양되어 있으며, 이는 이정수의 아버지였던 이기현의 조정 내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6) 『遊燕錄』卷8, 日記4, 正月初四日戊寅, “韓文曰 浮圖善幻多技能 蓋浮圖亦西域出也 意者 幻戲卽浮圖之一法 而其傳自漢武時 則佛法入中國 其漸已見於此矣 豈惟是哉 自是厥後 凡天下所謂奇寶 多出於西域 如玻璃瑪瑙葡萄西瓜胡桃獅子者 類與其人而並傳中國 方且涎流於遠物 薰化於異敎 以至於利瑪竇來自極西 遍歷天下 而左道異端之陷溺 人心相率 而入於禽獸之域者 於斯極矣”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정수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極西 지역에서 온 利瑪竇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정수는 현재의 인도와 서양을 모두 서역으로 이해하고, 둘 사이의 차이를 거리의 원근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마태오 리치가 1602년 『坤輿萬國全圖』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조선에서는 이수광이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을 이정수 역시 따르고 있는 것이다.<sup>67)</sup> 하지만 이정수는 둘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左道異端”이라는 용어로 대변될 수 있다. 즉 불법과 이마두는 모두 천하의 인심을 교란시키는 대상으로 상징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禽獸’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정수는 이마두의 교설이 횡행하게 된 이후로 천하의 백성들이 금수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금수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적과 비슷한 심급에서 이해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되기도 한다. 程子は 이에 대해 “禮를 한 번 잃으면 夷狄이 되고, 두 번 잃으면 禽獸가 된다.”<sup>68)</sup>라 하였다. 이정수가 정자의 夷狄·禽獸論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마두에 대해 이적보다 낮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금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서학의 폐단이 이전에 존재하였던 이단보다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조선에서 서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1791년 진산사건과 1801년 황사영백서사건을 거치면서 증폭되었다.<sup>69)</sup> 실제로 조선 조정에서도 1790년

67) 元載淵, 2000, 「조선 후기 西洋認識의 변천과 對外開放論」,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0쪽.

68) 『二程遺書』 卷2上, 元豐己未呂與叔東見二先生語, “禮一失則爲夷狄 再失則爲禽獸”

69) 조선의 西學 전파 양상과 위축에 대해서는 趙光, 1978, 「辛酉迫害의 性格」, 『民族文化研究』 13; 이원순, 1986, 『조선서학사연구』, 일지사; 노대환, 1996, 「19세기 전반 西洋認識의 변화와 西器受用論」, 『한국사연구』 95; 山室信一, 2009, 「서학(西學)에 의한 韓國인식의 변화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사상연쇄(思想連鎖)의 시각에서-」, 『인간·미래·환경』 3 등 참조.

대부터 서학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드러나고 있으며,<sup>70)</sup> 여러 학자들의 글에서도 비판적 어조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정수와 같은 세대였던 이규경은 『五洲衍文長箋散稿』, 『斥邪教辨證說』에서 서양의 학문을禽獸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한 潘庭筠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sup>71)</sup> 이정수와 마찬가지로 이규경 역시 금수라는 용어를 통하여 서학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反西學의 기초는 反異端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규경은 『斥邪教辨證說』에서 서학을 비판하기에 앞서 楊墨老佛을 비판하며 이단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있으며,<sup>72)</sup> 이정수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柳健休(1768~1834)도 『異學集辨』에서 노자, 장자로부터 서학까지 변론하며 비판하였다. 이정수가 서학에 앞서 불교를 비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반서학은 서학에 대한 반감을 넘어 주자 성리학에 대한 整風運動과 같은 형태로 확대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정수는 전통적인 중화와 이적의 구도 위에 儒學과 西學, 혹은 反儒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19세기 후반 화서학과와 같이 극명한 형태의 對西洋認識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sup>73)</sup>

70) 『正祖實錄』 卷43, 정조 19년 7월 25일 갑술; 12월 12일 기축; 『純祖實錄』 卷2, 순조 1년 1월 10일 정해; 2월 18일 갑자 등.

71)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釋典類, 西學, 斥邪教辨證說.

72)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釋典類, 西學, 斥邪教辨證說, “聖道旣熄 楊墨老佛 橫肆放縱 驅天下之人 盡入其圈 而不知返焉 孟子出而闢之 然猶有其萌 而已楊歸於老墨歸於佛 所謂吾道 不絕如線 世以儒道釋三教 比鼎足焉 妄也 宋代程朱以閑聖辟邪 膺運而起 斯文幸得不墜 海內之人 不至禽獸之域矣”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규경 역시 서학 이전의 이단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수의 구역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73) 화서학과와 대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김근호, 2009, 「화서학과와 형성과정과 사상적 특징 - 서구 문명에 대한 화서학과의 사상적 대응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5;

그리고 이정수의 민감함은 신유사옥 당시 아버지 이기헌의 활동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정수는 청을 ‘이적’으로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까지 거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의 중심, 즉 ‘중국’의 지위를 다시 부여하였고,<sup>74)</sup> 따라서 이정수의 세계관 속에서는 전통적인 조공·책봉관계가 여전히 유효하였다. 세계는 문화적 수준에 따라 지위가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서역 사이에는 긴장감이 따르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강고한 문화적 화이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 맺음말

이정수는 조선과 청, 그리고 해외세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정수의 대외인식은 18세기의 다양한 여러 사유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의 가문이 19세기 초반 수행하고 있었던 정치적 역할과도 관련을 맺고 있었다. 앞서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정수의 집안은 당대 서울 지역에서 벽파계열의 인사 및 가문들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기헌은 정조와 심환지의 기대를 받으며 정계에 진출하였고, 신유사옥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

---

오영섭, 2013, 「위정척사사상가들의 사유구조와 서양인식: 화서학과의 경우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0 참조.

74) 『遊燕錄』卷5, 異觀實聞總記 下, 外國朝聘, “今清地方 西北至甘肅 西南至緬甸 南極雲貴 東有兀喇船廠 乃其發跡之地 在皇明一統之外 西城吐蕃突厥之地 盡入版圖 幅員之大 甲於前古 朝貢之國 亦倍前代 … 乾隆癸丑 噶咭喇國 越重洋來朝 又西域遠部廓爾喀噶爾丹 雪山嶺來貢 皆前代未嘗通中國者也”

였다. 이정수는 비록 현달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아우 이정서는 문과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아버지와 비슷한 사로를 경험하였다. 또한 그의 집안은 벽파계의 유력 가문 중 하나였던 윤득부 가문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정치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의 연행록을 살펴보면 이정수가 접하였던 다양한 서적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그의 저작 속에는 다양한 중국 지식인들의 서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는 명대의 인사, 혹은 청대에도 명에 대한 절개를 지켰던 인사들의 저작들이었다. 다음으로는 18세기 초반 낙론계로부터 18세기 후반 북학파로 손꼽히는 국내 지식인들의 저작이 다수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정수는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최신 학설들을 접했으며, 이는 서울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가문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가 청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던 다양한 지식인들의 견해를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견해를 취사선택하거나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대청관을 개진하였다. 이정수는 우선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자국의 역사 속에서 청의 역사를 분리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요동과 만주라는 지리적 강역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동국의 역사는 한반도 내로 국한되었지만 중화문명과 운명공동체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즉, 화이관의 여러 가지 요소 중 지리적 요소를 배제하는 대신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과 청 사이에 문명적 경계가 지어진 것이다.

이적으로서의 청의 지위는 오삼계론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정수는 송시열과 김창업, 그리고 일부 북학파에 의해 이루어진 오삼계에 대한 긍정과 청에 대한 이해의 재고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이정수는 이자성의 자질에 대한 과대평가, 산해관의 견고함에 대한 과소평가, 永曆帝에 대한 공격, 참칭에 대한 책임을 들어 오삼계에 대한 전면적

인 비판을 가하였으며, 이를 옹호한 김창업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청에 대한 이정수의 태도는 그의 연행과정에서도 여과없이 드러난다. 이정수는 청의 문인들과 전혀 교류를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청 황제에 대한 인간적인 호기심마저 외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물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적과 중화의 풍속을 철저히 분리시키며 청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정수의 시선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미묘한 변화가 확인된다. 이정수는 외국조빙조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의 전통에 따라 중국과 해외 제국들에 대한 조공·책봉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박제가의 해외통상론을 언급하였지만 동아시아 제국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즉 이정수는 해외의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 중심의 사고는 서역에 대한 이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정수는 서역에서 전달된 佛法이 한무제 때부터 이단으로 횡행하였으며, 이마두에 이르러서는 인민들이 금수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보았다. 서양 금수론과 같은 관념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 사이의 서학 관련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당시에는 서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反異端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념들은 다시 청과 서양 사이의 문화적 층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을 통해 살펴보면, 이정수의 대외인식 안에는 전통적인 화이관이 여전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외인식이 세계의 영역으로 확장되자 儒學과 西學, 혹은 反儒學이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구도 내에서 청은 중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정수의 문화적 화이관이 19세기 전반의 정치·사회적

사학연구 제123호(2016. 9)

상황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확장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옥자, 198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 김근호, 2009, 「화서학과의 형성과정과 사상적 특징 - 서구 문명에 대한 화서학과의 사상적 대응을 중심으로 -」, 『국학연구』 15.
- 김문식, 2003, 「星湖 李瀼의 箕子 인식」, 『退溪學과 韓國文化』 33.
- 김종복, 2011,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발해사 연구 성과」, 『한국고대사연구』 62.
- 김 호, 2013, 「조선후기 華夷論 再考 -‘域外春秋’論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62.
- 문창로, 2011,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 - 연구 추이와 특징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62.
- 박종민, 2011, 「조선시대 유교식 감실(龕室)의 수용과 변용」, 『문화재』 44-4.
- 배우성, 2012, 「조선후기 中華 인식의 지리적 맥락」, 『韓國史研究』 158.
- 오영섭, 2013, 「위정척사사상가들의 사유구조와 서양인식: 화서학과의 경우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30.
- 우경섭, 2013,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南明王朝 인식」, 『한국문화』 61.
- 유봉학, 1982, 「北學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湛軒 洪大容과 燕巖 朴趾源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8.
- 이경구, 2003,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제, 2016, 「조선후기 세계 이해의 세가지 방식 -연행록 외국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8
- 이학당, 2014, 「金昌業의 明末清初 戰爭 記憶」, 『東方漢文學』 60.
- 조성산, 2009a, 「조선후기 소론계의 古代史 연구와 中華主義의 변용」, 『역사학보』 202.
- 조성산, 2009b,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對淸認識의 변화와 새로운 中華 관념의 형성」, 『韓國史研究』 145.

## Abstract

# 1811 Envoy to Qing China and the Perception of Foreign World of Lee Jeong-soo

Lee, Myung-jae

After the Ming-Qing transition, Chosun's intellectuals made efforts to elevate Chosun as the only successor of Chinese civilization. Their efforts were made in a way to acquire the status of being China in racial, geographical, and cultural aspects, and among them, the utmost effort was made culturally. Meanwhile, they also discussed how to deem Qing continuously. Although the matter of internalizing Chinese culture proceeded rather smoothly, their awareness of Qing differed further. In other words, as the reign of Qing became stabilized, the way of deeming Qing between ideology and reality began to be divided.

In Seoul during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when Lee Jeong-soo (李鼎受: 1783~1834) worked actively, a variety of ideas conflicted. Even though Bukhak School insisting the acceptance of Qing's civilization in the late 18th century was still influential, new ideas were suppressed through Sinyusaok (辛酉邪獄) or such and the powerful centered around the families of maternal relatives were obtaining the political lead.

Lee Jeong-soo accepted diverse opinions from Chosun intellectuals in the 18th century and presented his own unique view to Qing. First of all, he emphasized Chosun's history and cultural tradition, and then, he tried setting boundary from Qing which was sharing territory with Gochosun

geographically. Through this, Qing was assigned with its identity as 'ijeok'. Qing's status as ijeok was once again verified by Osamgyeron. Lee Jeong-soo did severely criticize the affirmation of Osamgye practiced by Song Siyeol and Kim Changeop and some of the Bukhak School members and reconsideration on understanding of Qing.

However, Lee Jeong-soo's understanding of world order wa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viewpoint. Lee Jeong-soo did stress the relations of jogong · installation towards China and foreign empires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political affairs to China in Oeukjobingjo. Also, Lee Jeong-soo revealed his severe hostility against the West. Insisting that Western sciences are the teachings of birds and beasts, he developed Seoyangeumsuron (西洋禽獸論). In brief, Lee Jeong-soo's awareness of foreign countries was still significantly grounded on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China and igeok, and when this is extended to the scope of the world, it is converted to the new criteria of Confucianism (儒學), Seohak (西學), and anti-Confucianism (反儒學).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Lee Jeong-soo's cultural Hwaigwa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of the early 19th century and becoming extended.

Keywords : Lee Jeong-soo(李鼎受), Yooyeonok, Travelogues of Joseon envoys to Qing China, Cino-centrism, 'Hwa-lh-gwan', View on Qing China

